정복자 하나님의 노략물 되기

(예레미야 45:1~5)

1.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2.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4.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정복자 하나님의 노략물 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정복자 하나님의 노략물 되기'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로 표현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복자로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략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복자와 노략물의 관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적 천재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략물과 비슷한 말로는 전리품이 있겠습니다만 이는 모두 정복자에게만 허락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략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전국의 정복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노략물이라는 단어는 앞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난바 있고 때로는 전리품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결정되면 정복자는 패전국을 진멸시켜나갑니다. 이때에 없애기에 아까운 가치들은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상아나 보석 같은 것들이 그러했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들도 전리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또는 노예로 부리기 위해 백성들을 잡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정복자들이 원하는 전리품이라면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삼기 원하시는 것들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단순히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생존을 위해 적절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셨던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빠져들어서 세상을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아름다움에 취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적절하고 합당한 모습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창조된 피조세계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것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예언된 대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승전국의 정복자가 패전국을 진멸시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멸시킬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도 바다도 동물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육체를 입고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까워하셔서 땅을 진멸시키실 때에 하늘로 불러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에 안수집사님 다섯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다 초등학교 동창이다 보니 다들 편하게 말을 주고받으십니다. 한 분이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야?"라고 물으셨는데 다들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굳이 노략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이 세상은 진멸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어져야 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 부자가 된 사람만 아까워하십니다. 이러한 특징이 하나님의 노략물이고 전리품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노략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비서관이었던 바룩에게 주신 사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 비해 짧습니다. 또 사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의 예언들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예언들에 대한 답이 숨겨진 말씀입니다.

바룩에게 허락하신 예언은 실제로는 BC.605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BC.586년이니, 예언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의 1차 침공 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기에 이를 불길하게 여긴 고관들에 의해 성전 출입을 금지 당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예언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하였고 자신을 대신하여 성전에 들어가 읽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야 했던 바룩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또한 조국을 사랑했던 바룩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러한 바룩의 심리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고통과 슬픔, 탄식과 피곤, 평안을 찾지 못한다는 표현들에서 바룩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을 직접 멸절시키셔야만 하는 상황이 이르렀음이 죄송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게 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바룩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강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이러한 마음을 보시고 예레미야을 통해 예언을 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바룩을 위로하시기는커녕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온 땅은 곧 지구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든 민족이든 그 뜻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시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동전 한닢에 팔리는 새 한 마리가 태어나서 땅에 떨어지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의 흥망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멸망의 예언을 쓰고 읽으며 괴로워하는 바룩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애국심이나 민족애도 아니었고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땅에 휩쓸리고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태도에 대해 반문하듯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에 내려질 재난에 대해 괴로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룩의 마음이 이 땅에 휩쓸리고 있었

기 때문입니다.
또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일'이란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바룩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조국을 구하시기 위해 하실 일들이었습니다. 바룩은 조국과 민족이 당하게 될 일들에 마음이 휩쓸렸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조국과 민족이 살아남을 길에 대해 바라고 그것을 큰 일로써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개인사에 대한 염려까지 이 모든 일들은 한 개인에게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땅에 휩쓸린 것이라 말씀하시며 오히려 냉소적으로 받아치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세운 것을 헐 것이고 심었으니 뽑을 것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상황을 판단하고 개선을 요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룩이 큰 일이라고 여긴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 속한 사회와 단체를 구하는 일, 가정을 구하는 일, 내 생애를 책임지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을 휩쓸리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진멸하실 때에도 그를 아깝게 여기시고 노략물과 전리품처럼 취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보자면 본문은 지금까지 보아온 1~44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예언과 갈등과 충돌에 총합으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략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속한 삶의 상황을 바꾸려하고 개선시키는 것을 큰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을 꿈꾸는 이유는 마음이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휩쓸리지 않는 자들만을 귀중히 여기셔서 노략물과 전리품으로 삼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46~51장 까지는 이방나라 10개국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문은 선민 유다 나라에 대한 예언의 결론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정복자 하나님의 노략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길거리가 강처럼 변합니다. 온갖 것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물에 잠기고 나면 건져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략물로 여기시기 위해서는 땅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땅에 휩쓸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 없이 십년간을 사울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이 위태로운 기간 동안 땅에 휩쓸리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노략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언제나 육체가 놓인 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왕이

되었기에 왕궁에서 펼쳐지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음을 유지하였고 훗날 성군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추종자들이 엔게디 굴에 숨어있을 때에 추격하던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굴에 들어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추종자들은 이때를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쫓기는 상황에 휩쓸리지도 않았고 추종자들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땅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그 마음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80살까지 지낸 것도 휩쓸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안에서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또한 그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삶도 휩쓸리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던 구스 출신의 내시 에벳멜렉 또한 세태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땅에 휩쓸린 사람들이 큰 일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합니다. 교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나서서 구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흔들린다고 여겨지면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기 위한 큰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땅에 휩쓸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육체가 속해있는 삶의 환경에 절대로 휩쓸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는 결국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없애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노략물과 전리품으로 취하실 대상은 땅에 휩쓸린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부자 된 사람들만을 귀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땅에 휩쓸리는 것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홍수에 휩쓸리는 순간 물에 잠기고 흙이 들어가 못쓰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휩쓸린 마음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형편, 나라의 상황 등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휩쓸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취하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기시는 마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을 큰 일로 보지 않는 이들을 들어서 정말로 큰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땅에 휩쓸려 다녔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식민지가 된 조국이 독립하기를 바랐고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우스울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된 제자들의 마음은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땅에 휩쓸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은 루터가 마음에 큰 뜻을 품고 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붙였던 것은 땅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계 전체를 휩쓸고 내려가던 거대한 타락의 강물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루터의 행동은 교황제도를 수정하겠다든지 잘못된 교계를 바로잡겠다는 큰 일을 꿈꾸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또한 오랜 세월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마음이 땅에 휩쓸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객관적으로 드러내면 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동안 마음이 휩쓸리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히려 삶은 하나님이 노략물과 전리품으로 삼으실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인 것은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교계와 신학사상 조류에 휩쓸려 갈 수 없다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루터를 손에 쥐시고 종교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자가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을 정복자로 본다면 십자가 생활화는 나를 가치 있는 노략물과 전리품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부자 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부자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지심으로 나라는 인격에 대해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노략물이 되고 전리품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이 때에 장미를 가진 것은 나이지만 동시에 장미도 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략물과 전리품으로 가지실 때에만 나도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 마음이 휩쓸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 자동차라도 홍수에 떠내려가면 폐차시킬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휩쓸린 마음은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노략물과 전리품이 될 수 없습니다.
바룩은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괴로워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재산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은 자연히 땅에 휩쓸려 들어갔고 괴로워졌습니다. 이러

한 바룩에게 하나님은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노략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시키실 때에 아까워하실 전리품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뜻을 펼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노략물과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하는 짓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문제는 온 땅의 일들을 세우시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중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끌어안고 걱정하고 괴로워한다면 땅에 휩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육체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략물과 전리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아깝게 여기셔서 손에 쥐시고 소유로 삼으시고자 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휩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배우자에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처한 상황을 타개하려하고 개선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냉소적으로 '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자기 나름의 큰 일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선민은 땅에서 큰 일을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을 더 나은 처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노략물이 되고 전리품이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땅과 분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까워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일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일 또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휩쓸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휩쓸려서 큰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안수집사님 다섯 분이 서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로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묻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해도 '잠깐만요'라고 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제 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신앙에 대한 우울함이나 회의에 휩쓸릴 필요가 없었기 때

문입니다. 열을 내고 반박하며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그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휩쓸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막힙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귀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생활화로 휩쓸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략물과 전리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자 되시는 일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붙잡으실 것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부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면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손에 쥐시고 원하시는 뜻을 행해가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일일수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이미 하나님 부자가 됨으로써 다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새삼스레 그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멋진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 하루도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노략물과 전리품이 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부자 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